



미 증시, 기대인플레이션 둔화에도 혼조세 마감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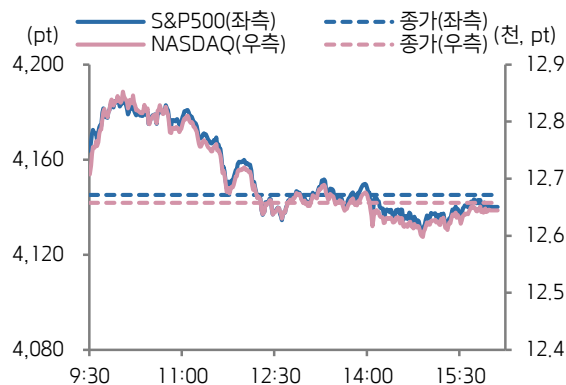
8 일(월)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상원 통과, 뉴욕 연은 7 월 소비자기대지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 호재로 상승 출발했으나,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 속 엔비디아 주가 약세 등으로 보합권 등락을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 (다우 +0.09%, S&P500 -0.12%, 나스닥 -0.1%, 러셀 2000 +1.01%).

7 월 뉴욕 연은 1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 6.8%에서 6.2%, 3 년 3.6%에서 3.2%, 5 년 2.8%에서 2.3%로 하락. 식료품과 휘발유 등의 생활 필수품의 물가 폭등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.

4,300 억달러 규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(The Inflation Reduction Act) 상원 통과, 금요일에 하원 투표 이루어질 예정. 3,000 억 달러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약 1,200 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.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3,690 억달러 투입(친환경 자동차 및 제조시설에 세액공제, 개인의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혜택 제공 등),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개혁 내용 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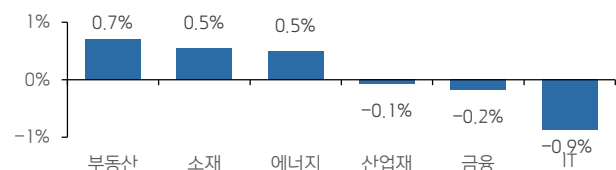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부동산(+0.7%), 소재(+0.5%), 에너지(+0.5%) 업종 강세, IT(-0.9%), 금융(-0.2%), 산업재(-0.1%) 업종 약세. 엔비디아(-6.3%)는 8 월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가이드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6%대 급락. 마이크론(-1.62%), AMD(-2.19%) 등 반도체 업종 동반 약세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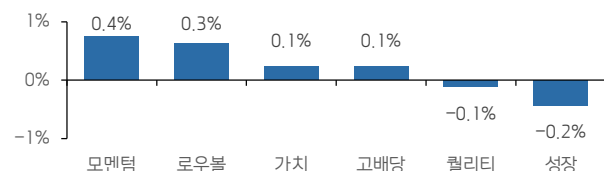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140.06	-0.12%	USD/KRW	1,306.40	+0.63%
NASDAQ	12,644.46	-0.1%	달러 지수	106.44	-0.17%
다우	32,832.54	+0.09%	EUR/USD	1.02	-0.02%
VIX	21.29	+0.66%	USD/CNH	6.76	-0.03%
러셀 2000	1,941.21	+1.01%	USD/JPY	134.97	+0.01%
필라. 반도체	3,004.34	-1.61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652.44	+0.35%	국고채 3년	3.127	+5.2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170	+5.5bp
Eurostoxx50	3,757.22	+0.85%	미국 국채 2년	3.205	-2bp
MSCI 전세계 지수	640.83	+0.2%	미국 국채 10년	2.757	-7bp
MSCI DM 지수	2,758.72	+0.24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001.79	-0.11%	WTI	90.6	-0.18%
MSCI 한국 ETF	61.06	+0.54%	금	1804.9	-0.0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54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12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1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99.5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뉴욕 연준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장중 7 월 미 CPI 경계심리 유입 가능성
2. 미국 밌 주식 급등이 국내 중소형주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
3. 원/달러 환율 하락 vs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화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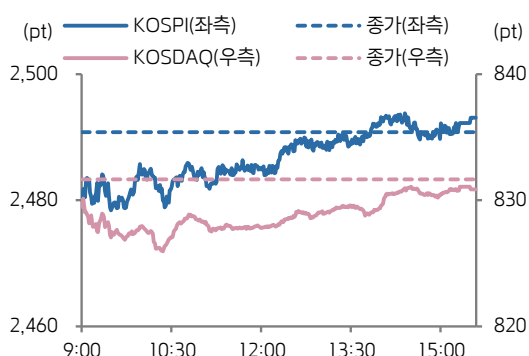
지난 5 일(금) 미국 7 월 고용 슈퍼서프라이즈 직후 9 월 자이언트스텝 인상 가능성 확대로 주식시장은 단기 조정 압력을 받기도 했으나, 이를 소화하면서 위험선호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. 8 일(월) 배드배스앤비온드(+39.8%), 게임스탑(+8.6%) 등 밌 주식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도 시장에 투기 수요들이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.

그러나 전거래일 나스닥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장중 내내 반납한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시장은 고용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10 일(수) 발표 예정인 7 월 미국의 CPI 불안 심리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7 월 헤드라인 CPI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8.7~8.8%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6 월(9.1%)에서 피크아웃할 전망이다. 올해 2 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CPI 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. 더 나아가, 9 월 FOMC(20~21)일까지 공식적인 연준의 정책 회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CPI 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시에는 1994 년 4 월처럼 임시의회의를 통한 긴급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.

다만, 1990 년대 당시 연준은 시장과의 소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었으며, 현재는 2010 년대 들어서는 매회의 후 연준의장의 발언, 포워드 가이드스, 장기 경제 전망 등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수단이 더 강화됐다는 점이 차별화된 부분. 또한 어제 뉴욕 연에서 발표한 1 년 기대인플레이션(6 월 6.8%→7 월 6.2%)이 둔화됐으며, 세부적으로 주택(4.4%→3.5%), 식료품(9.3%→6.7%) 등 주요 세부 항목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. 따라서 7 월 CPI 발표 후에 연준의 긴급 금리 인상 혹은 9 월 FOMC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현시점부터 기정사실화하기 보다는 이후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잭슨홀 미팅(8 월 25~27 일) 결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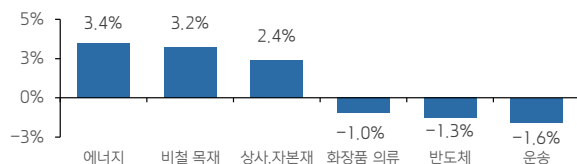
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둔화, 원/달러 환율 하락(역외 현재 1,299 원대) 등 일부 매크로상 우호적인 재료에도 10 일(수) 미국 CPI 이벤트를 앞둔 경계 심리, 미국 반도체주 약세(엔비디아 -6.3%, 마이크론 -1.6%) 등으로 제한적 추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, 태양광 등 친환경 관련주들이 미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(태양광, 배터리 대규모 투자, 친환경 관련 세액 공제 등)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, 전거래일 일정부분 국내 증시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. 이를 고려 시 금일 국내 증시는 업종 내에서도 개별 실적 및 이슈에 따라 차별화되는 종목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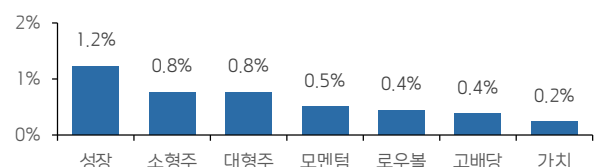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E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취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